

“맑은 물, 새들이 지저귀는 도심 속 숲서 힐링하세요” 도심 속 숲 ‘천왕산 생태공원’ 조성

경작으로 훼손된 토양·수질·지형 회복... 도시소생물 서식공간 복원
천왕산, 푸른수목원 잇는 도심생태축 조성... 생태연못, 저류습지 등 설치

“맑은 물, 새들이 지저귀는 도심 속 숲에서 힐링하세요”

구로구가 향동 148번지 일대에 천왕산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구는 “경작으로 훼손된 지역을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 복원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며 “2020년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납부금을 50%까지 반환받아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로구 천왕산 도시소생물 서식공간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천왕산, 푸른수목원, 향동 공동주택을 잇는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기간 경작지로 이용돼 주변 숲과 단절됐던 지역을 다시 연결해 지속 가능한 도심 생태축을 구축했다.

천왕산 생태공원은 조류, 곤충



구로구가 향동 148번지 일대에 천왕산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구는 경작으로 훼손된 지역을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 복원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등 생물에게는 서식지로, 주민들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식물들로 채워졌다. 9,100㎡ 규모로 생태연못, 저류습지, 조류서식지, 관찰데크, 숲속생태놀이터, 산책로 등이 조성됐다.

소나무, 매화나무, 산사나무 등 교목 279주, 사철나무, 산수국, 진달래 등 관목 5100주, 구절초, 꽃창포 등 초화류 8740본, 덩굴류, 파종 등 다양한 수목도 식재됐다.

구로구는 이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날개띠잠자리, 붉은머리오목눈이를 목표종으로 선정하고 적합한 서식환경을

확보해 건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천왕산 가족캠핑장(향동 149-1), 푸른수목원 이용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생태탐방, 체험학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구로구는 3월 말 준공되는 인공암벽장을 비롯해 스마트팜, 책읽터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해 천왕산 주변을 자연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선출

오는 ‘4·7 서울시장 보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선출됐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기반으로 70%에 육박하는 표심 물이



박영선 후보

에 성공, 3번째 도전만에 본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선자 발표대회를 열고, 박영선 전 장관이 최종 득표율 69.56%로 이상호 의원(30.44%)을 제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전 장관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구로구(을)에서 내리 3선을 포함 4선 의원을 지냈으며, 201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민주당 서울시장후보로 선출된 박 전 장관은 4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2파전 또는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유권 기자>

오세훈 전시장-안철수 대표, 野단일화 본격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전 시장은 4일 나경원 전 의원을 꺾은 후 수락



오세훈 후보

연설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다. “분열된 상태에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전 시장이 제1야당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도 본격화됐다.

정권권 안팎에선 ‘중도층 표심’이 야권 단일화의 최대 변수로 꼽



안철수 후보

히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중도성향인 오 전 시장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자로서 이번 경선 과정들이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비전, 공약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 서울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조만간 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Daum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 정직 그리고 멋: 진실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중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서울시장 등 '4·7 재·보선' 전국 21곳 확정

18~19일 후보자 등록, 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4월2~3일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4월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총 21곳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선거별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

체장 2곳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보은군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 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이며,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선거인 명부는 26일 확정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2일, 3일 양일간으로 투표시간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

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 면, 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인 7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투·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대변인 등 임명

비서실장 이수진 의원, 대변인 고민정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4일 후보 비서실장에 이수진 의원(동작을)과 천준호 의원(강북갑)을 임명했다.

또 대변인에 고민정 의원(광진을), 부대변인에 황방열 전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후보 수행실장은 강선

우 의원(강서갑)이 맡기로 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며, 선대위 인선은 의원,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오세훈 후보, 구로 방문 "서남권 랜드마크로 육성"



오세훈 후보(가운데)가 지난 6일 구로1동 구일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구로1동 차량기지이전 문제점에 대한 주민간담회에서 한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용태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일 구로구 차량기지를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오 후보는 이날 구로 차량기지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갖고 신도림동 일대로 둘러쌌다. 그는 간담회에서 "구로동 차량기지 이전은 16년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써 먹은 사업"이라며 "계획만 있고 진도가 나가지 않아 주민들께서 많이 답답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어떤가. 올해 완공 예정이지만 지하도로운영과 지상유류부지 사용에 대해 아직도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자주 반복되는 신도림동의 정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 지역 주민들께 오세훈을 믿고 서남권의 발전을 맡겨달라"며 "구로차량기지, 구로공구상가, 신도림동을 묶어 서남권의 랜드마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중수청 설치 반대"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도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 표명을 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정부패 대응 능력이 약화됐음을 지적하며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여 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해 윤 총장은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났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유권 기자>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내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 대상 1인당 월 50만원 지급

구로구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50인 미만 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다. 고용보험은 내달 30일까지 유지돼 있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치(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구청 신관 1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gurojob@citizen.seoul.kr),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내달 말 개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구청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860-3447, 3462.

<채홍길 기자>

2021년 구로구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구로구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구로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20년 11월 14일~21년 3월 31일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에 한함

접수 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1회)

지원 내용 월 50일 이상 무급휴직 시 총액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당월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 신청서류 제출 후 1주일 내, 신청지연에 따라 지원액 상향

신청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구청홈페이지 정부파일 확인, 고용보험사명 및 유무확인, 근로복지공단(http://total1.komtel.or.kr) 개인통장사번(무급휴직자), 구청홈페이지 정부파일 확인

접수처	신청기준	접수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구로구청 신관1층)	1순위: 임금지급 입증 2순위: 영입합의서 3순위: 그 외 입증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공공기관에 방문 gurojob@citizen.seoul.kr ☎ 02-860-2650

상세문의: 구로구청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02-860-3447, 3462)

구로구 '2021 구정현황' 발간

연혁·행정구역·인구 등과 부서별 주요현황 소개

구로구가 '2021 구정현황'을 발간했다. <사진>

구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정 사업을 안내하고 구청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구정현황을 제작하고 있다.

'2021 구정현황'에는 구로구의 연혁·행정구역·인구 등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현황이 소책자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부서별 주요현황은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등 11개 국으로 구성된다. 각 부서 특화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민 이용시설



의 위치, 전화번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로구는 많은 양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도표,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했다. <김유권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연중 화재 발생 중 '봄철 화재' 가장 많아... 불조심 신경을

가정서 지켜야 할 화재 예방 요령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계절 중 봄철이 5만9,653건(29%)으로 가장 많은 걸로 밝혔다. 건조한 기후와 야외활동 증가로 임야와 기타장소(야외·도로) 등 실외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계절별로는 봄(29%) → 겨울(28%) → 여름(22%) → 가을(21%)순으로 봄철에는 화재에 각별히 조심하고 예방을 해야 한다.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꽂초, 쓰레기 소각 등?부주의가 3만4,819건(58.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 원인 : 부주의(58.4%) >전기(18.2%) >기계(8.9%) >방화(2.1%) 순이다. ▲부주의 사유 : 담배꽂초(32.2%) >쓰레기소각(16.8%) >음식물 조리(13.1%) >불씨/불꽃 방치(12.6%) 순이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주거시설 1만4,161건(23.7%), 야외·도로 1만2,768건(21.4%), 산업시설 7,749건(13%)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봄철 화재로 인한 총 사망자 453명 중 260명(57.4%)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본지는 3월을 맞이하여 계층별 화재 예방 요령을 알아 보기로 했다. 우선 화재를 대비하려면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 필수다.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사용 방법을 익혀 두며, 소화용수를 준비해 둔다. 무엇보다 화재 예방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환자만을 두고 집을 비우지 않는다. 2층 이상에서 살 때는 사다리나 밧줄 등 피난기구를 미리 마련해 둔다. 비상 통로에는 장애물을 두지 말고 쉽게 통할 수 있도록 하며 쇠창살 등은 비상시 열 수 있도록 해둔다. 여관, 호텔에 숙박할 경우에는 건물의 비상구를 항상 확인하여 둔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화재예방 요령

△전기 미사용시 항상 플러그 빼 놓는 습관을

전기담요 및 전기장판은 접하지 않도록 하고 부착된 자동 온도 조절장치는 사용 전에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전기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기른다. 플러그를 잡고 뽑으면 안전하고, 선을 잡고 뽑으면 위험하다.

전기 제품은 검정품을 사용함이 안전하다. 전기(석유, 가스)기구는 검사 합격품을 구입하여 사용설명서 상의 취급 요령을 익혀 바르게 사용한다. 과다한 전기 사용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다.

퓨즈가 자주 끊어질 때는 단순히 퓨즈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누전 등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고친다. 비닐장판, 양탄자 밑으로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전기배선(가설)을 하지 않는다.

△석유난로는 불이 켜진 상태에서 옮기지 않는다

석유난로, 풍로를 켜서 불이 다 붙은 후에는 심지를 조절, 과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과열 여부를 확인한다. 불이 붙은 상태에서 난로를 옮기거나 기름을 주입하는 행



소방청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계절 중 봄철이 5만9,65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조한 기후와 야외활동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계절 중 봄철 5만9,653건... 29%로 겨울철 보다 많아 발생 원인, 부주의가 58.4%로 1위... 전기, 기계, 방화順 전기 미사용시 플러그 빼고, 가스 밸브 잠그는 습관을

동은 위험하다.

난로나 풍로 등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기름을 넣을 때에는 지나치게 많이 넣지 말고 흘린 기름을 닦아낸다. 위험물을 두는 장소에는 주의 환기를 위해 표지판을 부착한다. 난로 주위에는 인화 물질 등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난로 주위에는 소화기나 모래 등을 준비해 둔다.

△가스 밸브 잠그는 습관을 기른다

가스 용기의 보관은 통풍이 잘되는 옥외에 둔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밸브는 꼭 잠그는 습관을 기른다. 가스 냄새가 심하게 새어 나온 것을 알았을 때는 모든 밸브와 콕크를 신속히 잠그고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가스 용기는 집 밖에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둔다. 비눗물로 수시로 점검한다.

가스기구 사용전에는 가스가 이미 새지 않았나 확인 후 불을 붙이며 사용시에는 창

문을 열고 자주 환기시킨다.

○흡물 노인 화재 예방 요령

연탄 아궁이 근처에는 성냥이나 휴지 등 불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아궁이 위에 빨래 등을 널어 놓지 않는다. 아궁이의 공기 조절 구멍은 종이나 형겅등 타기 쉬운 것으로 막지 않는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풍초를 아무곳이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다 놓아두지않으며 피운 후에는 반드시 재떨이에 꺼서 버린다. 담배 재떨이는 거실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비치하고 물을 부어둔다.

○아이들 화재 예방 요령

외출시는 모든 화기의 안전을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불조심을 주지 시킨다. 평소 아이들에게 가스렌지, 성냥불, 난로 등을 켜게 해서는 안 된다. 난로 등 불이 있는 곳에서 불 붙기 쉬운 물건을 갖고 장난하지 않도록

한다.

부탄가스통, 살충제 등 가스용기 제품은 고온에 폭발하므로 고온이나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성냥이나 라이터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산불 예방 요령

산불은 일단 화재가 났다 하면 불을 끄는 것도 어렵지만 복구를 하는데도 몇 십년이 걸린다.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가스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무조건 가져가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화기 취급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가능하면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취사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지정 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화재시 대비 요령

화재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노약자나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키고,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 119신고 및 이웃에 알리는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한다. 연기 속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 코를 가린 후 대피한다. 자체 소화 불능 시에는 신속하고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불이 났을때 행동요령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거나 소리가 들릴 때는 한밤중이라도 지체 말고 원인을 확인 점검한다. 불이 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우선 집 안에 있는 노약자 및 식구를 밖으로 대피시키면서 불의 크기 및 정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소방서(119)에 신고하여야 것인지를 판단한다. 자체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화재라고 이웃에 큰 소리로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화재초기의 조치 요령

화재가 초기일 때는 침착하게 소화기나 소화용수를 이용하여 소화하고 화재가 확대되어 자체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한다. 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개폐기를 내려서 전기의 흐름을 차단한다. 가스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가스용기를 불에서 먼 곳으로 옮긴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재빨리 옷을 벗거나 뒹굴거나 모포로 감싸거나 또는 물 속에 들어가거나 하여 불을 끈다.

△자체소화 불능시 대피요령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안전한 곳에 대피한다. 연기 속에서는 입, 코를 되도록 낮추어 짧게 숨을 쉬고 빨리 대피한다. 화염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모포 등을 뒤집어 쓰고 단숨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때에는 옆집 지붕이나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피난 설비 및 기구 없이 아래층으로 대피할 때에는 혁대, 커튼천 등으로 만든 줄을 타고 내려간다. 불에서 일단 대피한 다음에는 소지품, 물건 등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한민수 기자>

정현탑웨딩홀 조정현대표 '국민추천 국민훈장' 받았다

방송인 활동 중 뇌출혈 후도 수해복구 등 27년간 봉사 지역사회 행사 등 이웃에 7400만원 기부... '석류장' 수상

구로 대림역 소재 정현탑웨딩홀 조정현(60) 대표가 지난 3일 '국민추천 국민훈장'을 받았다. 뇌출혈 뒤에도 27년간 각종 봉사활동과 이웃에 7400만원을 기부한 공로이다.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은 지난 3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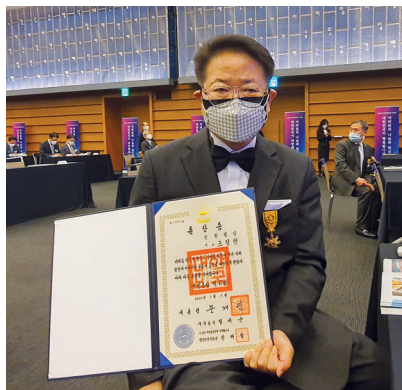
조정현 대표는 지난 1999년 뇌출혈로 쓰러져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해 복구 현장을 다니며 27년 동안 봉사하고 7400만원을 기부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해온 숨은 공로자 46팀을 '제10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조정현은 80-90년대 현역 개그맨 시절 '어쩔수 가 없어'란 유행어로 인기를 누린 주인공이다. 그는 1999년 라디오 방송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방송을 떠난 뒤 웨딩사업가로 재기했다. 특히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후배 개그맨들을 알뜰살뜰 챙겨주는 선배로 소문나 있다.

'연예계 숨은 천사' 조정현씨는 그동안 헌신적 봉사활동과 선행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많았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건 자원봉사, 삼풍백화점 붕괴 자원봉사, 파주·문산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에 피해복구 자원봉사, 고



정현탑웨딩홀 조정현 대표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추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조 대표는 뇌출혈 뒤에도 27년간 봉사활동과 7400만원을 기부한 공로로 수상했다.



지난 2019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수해지역에서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조정현 대표.

양시 원당천 범람 피해복구 자원봉사, 태풍 '매미' 피해 수해민돕기(이불 550채) 자원봉사, 태풍 '루사' 수해복구 자원봉사, 강원도 양양 산불 요여리 등 5개 마을에 이불 300채와 자원봉사, 전남 나주시 남평 폭설피해 자원봉사, 태안 원유수출 사고시 자원봉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수해지역 피해복구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눔기 나눔실천, 불우한 독거노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한마음 경로잔치 및 주민노래잔치 기부, 김장나눔 봉사활동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 왔다.

조정현 대표는 훈장 수상 소감에서 "국민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큰 훈장을 받아 송구스럽다"면서 "상이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작은 힘이나마 꾸준히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여년간 대전엑스포

자원봉사활동 공로로 대통령상(육관문화포장)과 국무총리 선행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해에는 구로경찰서, 구로구청, 소방서 등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자체와 관공서에 코로나 방역 물품을 지원해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연예예술사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민추천포상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 국민이 봉사·기부, 인명구조, 환경보호, 국제구호, 역경극복, 사회화합 분야에서 기여한 숨은 이웃을 추천하면 정부가 공적 확인 후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다. 국민훈장 6팀, 국민포장 7팀, 대통령표창 15팀(개인 11명, 단체 4곳), 국무총리표창 18팀 등 수상자는 모두 46팀이다.

국민추천포상 10주년인 올해는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추천받은 755건 가운데 현지조사,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심사, 온라인투표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의장,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감사패 받아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과 협의회 발전 기여"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 4일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 의장은 평소 관내 24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아동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4일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센터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내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감사패를 전달한 윤석주 구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그동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과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양육부담이 가중된 시기에 학교와 가정을 대신해 돌봄취약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해준 지역아동센터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가꾸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로구의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 등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주택복지 권리증진특위 본격 활동

위원장에 정대근 의원, 부위원장에 이재만 의원 선출

구로구의회 정대근 의원(고척1·2동, 개봉1동)이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 권리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제299회 임시회 폐회 직후 6층 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 정대근 의원, 부위원장에 이재만 의원을 선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대근 의원이 대표 발의



정대근 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

한 ▲서울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위원으로 정대근·이재만·조미향·박종여·박철성·박평길·김희서 의원 총 7명을 선임했다.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

리증진 특별위원회는 구로구민의 주택복지를 위하여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등 정비 관련 주택정책 및 추이 등을 살펴 구로구와 타 지자체 지역 간 차이, 불균형 문제, 주택복지 관련 집단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정대근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주택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구로구의

고대구로병원 자회사 엠엔비메디텍, 서영대와 산학협력 체결

고대 구로병원의 자회사인 (주)엠엔비메디텍(대표이사 조금준,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이 서영대학교(총장 김정수)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체결식에는 조금준 (주)엠엔비메디텍 대표이사, 이지웅 서영대학교(파주) 임상병리학과장, 이민우 고대의료원 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산전진단 공동연구 및 개발 △교수 현장연수 및 학생 현장실습, 인턴십, 취업 △신기술, 신재료, 신장비 공동개발 △초청강연 및 겸임교수 초빙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원 △실무위주의 교육과정 및 학습교재 공동개발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금준 대표이사는 "관련학



사진 우측부터 조금준 (주)엠엔비메디텍 대표이사, 서영대 이지웅 교수가 산학협력 체결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와 공동연구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을 산전 진단검사 업무에 접목시킴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의료계 연구개발 등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석구석을 살펴 주택정책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좋은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회의 중간역할을 맡아 위원장과 위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코로나 스트레스, BTS 공연으로 날리세요” 자동차영화관 ‘힘내라 구로’ 진행

26, 27일 안양천 주차장서 BTS 콘서트실황 상영

“코로나 스트레스, BTS 공연으로 날리세요!”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자동차영화관을 운영한다.

구는 “주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내라 구로!’ 자동차영화관을 마련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26, 27일 이틀간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안양천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각자 차 안에서 야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구로구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실황영상을 준비했다. 첫째 날(26일)은 ‘러브 유어셀프인 서울’, 둘째 날(27일)은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런던’을 상영한다.



구로구가 주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내라 구로’ 자동차영화관을 오는 26, 27일 오후 7시 30분 안양천 주차장에서 운영한다.

관람을 희망하는 이는 5일 오후 8시부터 구로구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연일 자별로 차량을 80대씩 선착순 모집한다. 차량 1대당 최소 2명은 탑승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차량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손소독, 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세무서 ‘제55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칼라피아·대일기업 대표,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구로세무서(서장 박진하)는 지난 3일 오전 10시 ‘제 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속 ‘모범납세자’로 뽑힌 법인과 개인, 세정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칼라피아 권오진 대표와 대일기업 김정미 대표가 건전납세 풍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유로파워(주) 강치욱 대표와 동아전기 최연순 대표가 국세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세무서에서 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칼라피아와 대일기업, 유로파워(주)를 비롯해 동아수중펌프, (주)아이두젠·세일섬유 산업사, 신진레이저, (주)렉스씨앤제이, (주)크라운화학, 라온지티에스, 성일기전 등 11곳이다.

이연정 세무회계사인우 세무사와 참세무회계사무소 이은숙 세무사 등 2명이 구로세무서 우수세정협력자로 뽑혔다.

올해 명예세무서장으로는 한성정보기술(주) 한병성 대표가 선정됐으며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는



구로세무서는 지난 3일 오전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속 ‘모범납세자’로 뽑힌 법인과 개인들, 세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했다.

세무회계 바름 대표세무사 김병덕 대표세무사가 선정됐다.

세무서 체납징세과 이경연 운영지원팀장은 기자에게 “코로나19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납세자의 날 행사를 최대한 간소화해 진행했다”고 귀띔했다.

수상 자리에는 구로세정협의회 김한기 회장과 송희순 사무총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진하 구로세무서장은 이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 수요에 기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등의 연장 ▲인건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철도 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콘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등도 함께 주어진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요즈음은 나이 60이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나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로 돌아가는 61세를 회갑(回甲)혹은 화갑(華甲)이라고 했다. 화(華)자를 파자(破字)하면 십(十)자 여섯 번과 일(一)자가 되어 61세가 된다. 62세는 진갑(進甲)이라 하여 환갑 다음해의 생일날로 새로운 갑자(甲子)로 나아간다(進)는

다. 요즈음은 나이 80이 돼도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다. 예전에 80세는 산수(傘壽)라고 했다. 산(傘)자의 약자(略字)가 팔(八)을 위에 쓰고 십(十)을 밑에 쓰는 것에서 유래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

뜻이다.

나이 64세는 파과(破瓜)라고 했다. 과(瓜)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八’이 되는 데 여자는 8+8해서 16세를 과년이라 하고, 남자는 8×8로 64세를 말한다. 벼슬에서 물러날 때를 뜻하는 말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이 70세 종심(從心)이 돼고 과한 행동을 하다 망신당하는 경우가 많다. 71세는 망팔(望八)이라고 하여 팔십 살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수명이 단명하던 시절이라서 나이 71세가 되면 80세까지 바라보게 된다는 뜻이다.

77세는 희수(喜壽)라고 하는데 희(喜)자를 초서(草書)로 쓸 때 “七十七” 처럼 쓰는 데서 왔

81세는 반수(半壽)라고 하였는데 반(半)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十一”이 되는 데서 왔다. 망구(望九)라고도 했는데 구십 살을 바라 본다는 의미이다. 81세에서 90세까지 장수를 기원하는 데서 온 말이다. ‘할망구’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 난 어원이다. 88세는 수(米壽)라 했다. 미(米)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十八”이다. 농부가 모를 심어 추수를 할 때까지 88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서 여든 여덟살을 표현한 말이다. 90세는 졸수(卒壽)다. 졸(卒)의 속자(俗字)가 아홉 구(九)자 밑에 열 십(十)자로 사용하는 데서 유래하였다. 99세는 백수(百壽)라 했다. 백(百)에서 일(一)을 빼면 백(白)자가 된다. <본지 회장>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장 직무대행 김만용 부지회장 선출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는 지난 2월 15일 전영수 지회장의 장기병가로 공석이 된 지회장



김만용 회장 직무대행

직무대행에 김만용(75세) 구로구지회 부지회장 겸 구립 구로구보훈 경로당 회장을 선출했다.

김만용 직무대행은 1967년 주월백마부대에 과병, 1969년 만기 제대 후 (사)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구로·금천지회장 역임했으며, 현재는 구로지회장을 13년째 재임 중이다. 또한 (사)대한노인회구

로구지회 부지회장, 구립 구로구보훈 경로당 회장직을 맡고 있다. 서울보훈지청장 표창(2005년)과 국가보훈처장 표창(2012년)을 받기도 했다.

김만용 직무대행은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로 사람들 사이에서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외유내강형의 인물로 알려져있다.

<채홍길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판 양장 / 325쪽/값12,000원 / 발행일 2013년 3월 5일

가로수 등 '나무 돌보미' 주민 모집

마을마당·쉼터 등... 관내 81개 노선 185개소 녹지 관리 구민·단체·학생 등... 청소·안전용품 제공, 봉사시간 인정

구로구가 주민이 가로수, 녹지대의 나무를 직접 돌보는 '나무 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주민이 직접 공공시설물을 가꾸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녹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 돌보미'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나무 돌보미'는 관내 가로수 및 띠녹지 일정구간을 개인 또는 단체에서 '내 나무'로 입양해 일정구간을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마을마당, 쉼터, 가로수, 녹지대, 자투리 땅 등이다. 관내 81개 노선의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가로수 26종 1만1,569주와



구로구가 주민이 가로수, 녹지대의 나무를 직접 돌보는 '나무 돌보미'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기로했다.

185개소(총 29만6,272㎡) 녹지가 관리 대상 수목이다.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면 구민, 단체, 학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나무 돌보미로 선정된 구민은 협약 체결 후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가로변 꽃·나무 심기, 물주기, 가로수 주변의 쓰레기·잡초 제거, 훼손시설물 보수 및 신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주민에게는 청소, 안전 용품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 시간도 인정해 준다.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은 "녹색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녹색도시과 860-2397. <김유권 기자>

"치안 인프라 구축, 안전한 구로로"

구로경찰서, 듀델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구로경찰서(서장 임경우)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치안인프라 공유와 관련, 민간기업인 듀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 등 관련 주무과장과 듀델코리아 대표이사, 부사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구로관내에서 활동 중인 듀델코리아가 보유한 79명(2월 말 기준)의 민간 경비원 등이 경찰과 협업해 경찰의 접근이 곤란한 구역을 보다 용이하게 확인하여 경찰과 주민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임경우 구로경찰서장은 "관내에 위치한 듀델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력치안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



구로경찰서가 지난달 26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치안인프라 공유와 관련, 민간기업인 듀델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자"고 당부했다.

정현종 듀델코리아 대표도 "구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민간기업인 듀델코리아가 범죄예방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구로구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코로나 돌봄 공백, 재능기부로 채운다"

돌봄 분야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전개

구로구가 은퇴자의 재능기부로 아동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어린이집 등의 수업이 줄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에 돌봄 분야 은퇴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의 전문인력이 퇴직 후 비영리 영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이달 10일까지 사업 참여자 45명을 모집해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온종일돌봄센터 등 관내 돌봄시설에 파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이달 말부터 관내 돌봄시설에서 학습·독서 지원, 예체능활동 보조, 요리,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시간당 2000원의 활동수당과 교통비·식비가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로구지역 아동센터협의회 '구들쟁'(02-859-7458)에 문의하고 이메일(guroguadong@daum.net)로 신청하면 된다.

강월명 일자리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은퇴자들이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며 보람 있는 인생 2막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독서동아리 선발, 활동비 지원

구로구가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공모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구로구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동아리 중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하는 동아리다. 정기모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구로구는 60여개의 동아리를 선발해 참여인원, 활동실적 등에 따라 30~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김유권 기자>

구로소방서, 고척스카이돔구장 화재 예방 현장지도

구로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지난달 24일 오후 관내 중점관리대상인 인근 고척스카이돔구장을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현장 지도는 대상처의 안전환경 조성 및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 유도 등 관계자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자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 현장 확인 ▲겨울철 화기 취급 등 소방안전수칙 준수 당부 ▲안전관리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체계 방안 논의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관리 당부 ▲기타 관계자



구로소방서가 지난달 24일 관내 중점관리대상인 인근 고척스카이돔구장을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건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전보공단 방문 없는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 안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제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안내

☞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앱

☞ 접속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선택 → 조회 및 발급 클릭 → 개인민원 상세메뉴 발급 증명서 클릭 → 공인인증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처리

②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 → The 건

강보험(앱) 핸드폰에 다운로드 실행 → 앱화면에서 인증센터 클릭 → 공인인증서 가져와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증명서 팩스발송 클릭 후 신청

③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메뉴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 공인인증 로그인 →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④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정부24 핸드폰 다운로드 후 실행 및 공인인증 → 메뉴-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안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공기관, 은행,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본인 지문인식 후 공단 제증명서(7종) 발급 가능

☞ 대상(7종): 자격확인서(2종), 납부확인서(3종), 국민연금 납부확인서(2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발급 안내: 행정·공공기관에서 신청·신고 업무 처리를 위한 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공단 확인하여 처리 가능

☞ 대상(11종): 자격확인서(2종), 납부확인서(6종), 검진결과(2종), 기타(1종)

건강보험 EDI서비스(사업장) 발급 안내

☞ 대상(3종): 납부확인서, 사업장직용 통보서, 사업장가입자명부

☞ 접속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방문자별 맞춤 메뉴 사업장-EDI서비스 클릭 → 제증명 클릭 후 제증명 신청

상당사 연결 없는 스스로 발급: 고객이 1577-1000 전화 후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만 가능

'스스로 발급 서비스'로 대기 시간 없이 발급 가능(보이는 ARS 선택 시 24시간 발급 가능)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선택(음성 ARS, 보이는 ARS) → 신분증 정보 확인 → 개인 고유정보 확인 → 증명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제공>

구로서 AZ백신 접종 후 60대 첫 사망

요양병원 입원환자... 백신 부작용 여부 미확인 접종후 이상 반응 신고도 6건... 전국 11명 사망

구로관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서울시와 구로구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1건의 사망사례가 신고되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달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 서울에서 사망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는 60대 남성 A씨로 관내 요양병원 입원환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54시간이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고는 이날 0시 이후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의 기저 질환 여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질병관리청, 민간전문가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A씨의 사망과 예방접종간의 1차 인과성 평가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은 추가적으로 의무 기록 조사와 분석 후 질병청 피해 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로관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사례도 6건이 집계됐다.

한편 전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 후 사망자가 구로사망자 포함 11명으로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요양병원 등에 입소해 있던 환자들이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1,060명

8일 현재 일주일새 20여명 늘고 사망자도 1명 증가 10명

서울 2만9179명, 사망 396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로관내 확진자가 증가세가 계속 이어 지고 있다.

8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1,060명으로 일주일새 20여명이 늘었다. 사망자도 지난주 비해 1명이 늘어 10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938명이 완치 퇴원, 110명이 치료중이며,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23명, 해외입국자 354명 등 모두 677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오류동 해적집 관련 41명,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5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관악구 리치

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554명, 해외 입국 7명, 기타(조사중) 33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8일 현재 모두 2만9천179명으로 사망자는 396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670명 ▲송파구가 1,605명 ▲관악구 1,384명 ▲강남구 1,334명 ▲노원구 1,281명 ▲성북구 1,278명 ▲동작구 1,209명 ▲중랑구 1,205명 ▲은평구 1,201명 ▲양천구 1,110명 ▲서초구 1,107명 ▲영등포구 1,096명 ▲동대문구 1,065명 ▲구로구 1,060명 으로 14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강동구 982명 ▲마포구 976명 ▲도봉구 916명 ▲광진구 800명 ▲용산구 775명 ▲서대문구 766명 ▲강북구 763명 ▲성동구 734명 ▲종로구 568명 ▲금천구 470명 ▲중구 456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관내 코로나19 백신 1,770명 접종

7일 현재 접종률 31.1%... 서울시 평균은 27.5%

3월까지 모두 5,600여명 접종 예정



구로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차 목표 인원의 40%를 넘어섰다.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입소자와 의료종사자의 1차 목표 인원 0000명 가운데 0000명이 접종해 46%의 접종율을 기록했다.

구로구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오류동 소재 삼농실버마을 요양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후 8일 현재까지 대상자 5,687명중 1,770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31.1%를 기록중이다. 서울시 전체는 대상자 133,902명 중 36,876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27.5%로 집계됐다.

구로구는 3월까지 코로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확진자치료병원, 정신재활시설 등 24개소 1,911명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소 종사자, 구급대원 등 2,700명의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5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69,000명을 우선 접종하고 이어서 7월부터는 일반 주민(18세~64세)의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5월부터 구로구 접종센터인 구로구민회관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무료로 실시

된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접종 대상, 시기 등을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전국적으로 31만명 접종 '이상반응 의심' 3,689건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누적 3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전날보다 1만7천131명 늘어 누적 31만 465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첫 접종을 시작한 지 9일 만이며 국내 인구(5200만명) 기준 접종률은 약 0.6% 수준이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만9387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5269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누적 3689건으로 집계됐고, 사망도 11명 신고됐다.

추진단이 그간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9명의 연령대는 20대 1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3명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은 대부분 평소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장애시설 입소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였다.

<김유권 기자>

관내 임시선별검사소서 6만9천명 검사

코로나19 확진자 395명 찾아내



지난 2월15일 개소한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 3월4일 현재 1만5,162명 주민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55명의 확진자를 선별하는 성과를 내고있다.

방역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진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구로관내 신도림역 남측광장과 오류역광장, 2곳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개소했다.

구로구는 2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 결과 지난 2월14일까지 5만1,423명을 검사해 330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구는 또 중국동포 등 외국인 밀집지역인 가리봉동 인근 구로리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외국인들을 검사한 결과 2,000여 명을 중 10명의 양성자를 선별하여 외국인을 통한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했다.

2월15일부터 서울시서 자치구당 2개소를 운영하던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로 축소 운영토록 결정되어 구로구는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갑지역과 을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구로역에 새로 임시선별검사소를 개설했다. 구로구는 무증상 또는

증상 의심자가 쉽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위치를 이동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2월15일 개소한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는 3월4일 현재 1만 5,16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55명의 확진자를 선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박범석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은 "진단검사를 확대해 감염환자를 빨리 찾고 격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지난 4일(목)과 5일(금)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휴일인 3월7일과 14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만 확인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홍길 기자>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누가 차지철에게 돈을 던지랴!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돈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역/사육판 양장/325쪽/값12,000원/발행일 2013년 3월 5일

“잠자는 책 함께 나눠요” 책정거장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관내 새마을도서관 13개소서 진행 구청서 정가 50%로 구매 ... 1인당 월 판매 권수 확대 5권

구로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책 정거장'을 운영한다.

구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책 순환을 통해 도서관과 주민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책 정거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책 정거장'은 주민이 가정에서 보지 않는 책을 가까운 동 새마을 작은도서관(구로3동, 개봉1동 제외)에 가져오면 구청이 책값의 50%(최대 1만5000원) 가격으로 구매해 관내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에 기증하는 도서 순환 시스템이다.

구매 대상 도서는 행사일 기준,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의 신간 도서다.

단, 파손되거나 기증·증정용 표기가 있는 책, 문제집이나 수험서 등은 제외된다.



구로구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책 순환을 통해 도서관과 주민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책 정거장'을 운영한다.

올해 구로구는 책정거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 한도를 1인당 1회 최대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고 연간 구매 상한제도도 폐지했다. '구로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기존대로 판매 제한이 없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에게 이웃과 소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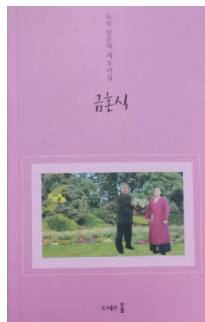
민문자 시인, 5번째 시집 '금혼식' 출간

제6부로 나눠 86편 주옥같은 시 펼쳐져

민문자 시인이 자신의 5번째 시집 '금혼식' 출간했다. 제1부 행복, 제2부 맛, 제3부 추억, 제4부 오작교, 제5부 코로나

때문에, 제6부 나의 삶 나의 인생 등 모두 86편의 주옥같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임보 시인은 "민문자 시인은 미사여구라든지 은유나 상징 같은 감춤의 수사 등은 다 펼쳐버리고 마치 어린이처럼 천진무구한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의 시에는 어머니를 섬기는 효심이며 친족을 아끼는 화목이며 지인과 이웃들을 배려하는 돈독한 사랑이 넘쳐흐른다. 생활주변의 이런 이야기들을



60세이상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초대시

소리 계단

시인 이현실



뉴욕 그랜드센트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
부드러운 선율이 발목을 휘감는다
시간도 잠시 쉬어가는 층계참
금발의 남자와 바이올린이 종종걸음을 붙잡는다
이곳은 소리의 계단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엉킨 걸음이 풀리고
다급한 출근길도 느긋하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소리의 페이지에
그리운 이름이 생각난다
얼마나 많은 슬픔이 쌓여
악기도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잔잔하게 파고드는 그 떨림에
굳은 표정이 풀리고 마음이 혈렁해지는 시간
계단을 타고 줄지어 흘러가면
소리를 파는 사내가 우듬지에 살고 있다

- 계간 『미래시학』 편집주간
- 격월간 『문학 秀』 기획의원
- 동작문협 자문위원
- 시집: 『꽃지에 물들다』 『소리계단』
- 공저: 『아하브』 『3인의 칸타빌레』외 다수

마치 수필을 쓰듯 자연스럽게 시로 엮어낸다. 희수를 맞은 시인은 이제 그의 생애의 전성기-황금기를 맞이한 것 같다"라고 했다.

또 흥해리 시인은 "작고하신 어머니에 대한 글과 희수에 맞이한 금혼식에 대한 글이 담담하게 그려면서도 자랑스럽게 펼쳐져 압권이다"라고 평했다.

1944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한국수필》 수필(2003), 《서울문학》 시(2004)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낭송문화진흥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 홍보위원, 우리시회 회원,

한국수필작가회 회원, 방송대 등 단작가회 교문, 시사랑 노래사랑 운영위원, 동양서예협회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수필집으로 『인생의 등불』 그리고 부부시집 『반려자』 『꽃바람』 과 칼럼집 『인생에 리허설은 없다』 『아름다운 서정가곡 태극기』 가 있다. 시집으로 『시인공화국』 『독신주의』 『공작새 병풍』 『꽃시』 가 있으며, 2020년에 한국현대시 작품상 수상하기도 했다.

도서출판 움 정가 10,000원.

〈김유권 기자〉

빠른 정보는 로또와 같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에세이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등록번호 2019-002126

문예창작의 혁명!
문학이라 읽고 문예라 쓴다.

문예창작실기 지도사 자격증

문학(文學)은 학문이고
문예(文藝)는 예술이다.

문학적으로 쓰면 답습이고
문예적으로 쓰면 창작이다.

세계 최초!
문예적 글쓰기 작법 완성.

왕초보 기준으로 6개월에 장편소설 완성할 수 있다.

한국문예창작진흥원

02-2636-3765